

불교유적 정신까지 목판에 옮겨

정비파씨, 30일까지 '국토기행 목판화전'



◊산전체가 온통 아와불교박물관인 경주 남산을 목판에 옮긴 정비파씨의 '경주남산전도'.

“우리의 국토는 그대로 우리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이며, 정신입니다.” 육당 최남선은 일찌기 수필 ‘국토예찬’을 통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정신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목판화가 정비파(47)씨가 6년여에 걸쳐 일관된 주제로 삼아온 ‘국토기행 목판화전’은 이번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30일까지 열리는 정비파씨의 이번 작품전 역시 주제가 국토기행이다. 그동안 정 작가는 경기도를 출발해 경상도, 전라도, 낙도의 섬까지 우리 국토의 구석구석을 누볐다. 우리

‘운주사 천불천탑전도’ 등 50여점 선비

판각원판·다색 목판화도 함께 전시

의 땅, 절터, 산, 논길은 물론 노동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목판 위에 새겼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것은 불교 문화유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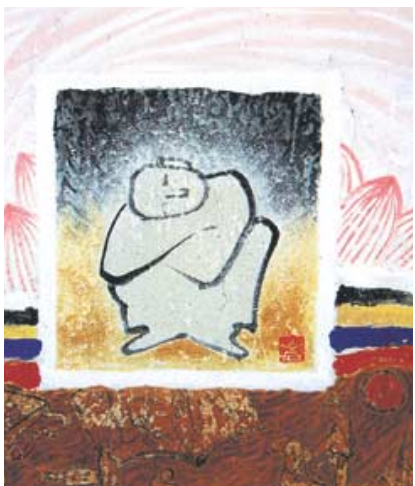
도처에 부처요 곳곳이 탑인 운주사를 목판에 조각한 뒤 채색을 입힌 ‘운주사 천불천탑전도’, 아와 불교 박물관인 경주 남산을 그대로 조각

한 ‘경주 남산 전도’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작품들이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산마을 삼존불’, ‘문경 봉암사’, ‘갯바위’, ‘부안 우동리 당산나무’ 등 50여점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관객들이 제작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원판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 작품들은 대부분 단색 목판화

위에 채색한 ‘채색목판화’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러 판으로 나누어 제작한 다색 목판화 작품도 4점 가까이 있다.

정비파씨는 “가장 오래된 목판화로 알려진 고려 목종 10년 보림인다라니경과 팔만대장경중 대방광불 화엄경의 변상도인 불교관련 목판화들이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며 “이런 소중한 의미를 되살리고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불교 문화유적을 목판 위에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053)420-8015

김주일 기자 jkim@buddhania.com



◊흙으로 만든 화판 위에 채색한 한승구씨의 ‘육, 색, 무색천’.

한승구씨 전통불화 日 전시

육·색·무색계 주제 50점

전통불화 작가 한승구씨가 30일까지 일본 동경 갤러리 훈에서 ‘육

색무색천(欲色無色天)이란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육계, 색계, 무색계 등 삼계를 표현한 50여 작품이 벽에 걸린다.

특히 한승구씨는 이번 불화 작품들을 하얀 도화지가 아닌 흙으로 만든 화판에다 그렸다. 이번 전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모두 동일한 구도를 하고 있다.

갖은 탐욕과 회노애락, 번뇌망상이 존재하는 하급 세계인 육계를 맨 밑에 잡고, 자아의 성찰과 수행으로 탐욕은 잊었으나 아직은 완전히 물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육계와 무색계의 중간적 단계인 색계를 그림 중앙의 네 모안에 표현했다. 또 화면 맨 위는 물욕 등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무색계를 그렸다. 일

본 훈 갤러리(03)5638-6658

‘가야금 명창 보존회’ 창단공연

안숙선·강정숙씨 한무대에

판소리 명창 안숙선(국립창극단 예술감독, 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씨, 국악협회 이사장 이영희씨에 이어 지난해 가야금 병창 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강정숙(국립국악원 지도위원)씨가 한 무대에 선다. 최근에 설립한 사단법인 가야금 병창 보존회를 축하하는 기념공연에서다.

이 공연은 26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향음재(香音齋)’라는 타이틀의 무대다.

안숙선씨는 가야금 산조를, 강씨는 가야금 병

창으로 단가 ‘호남가’를, 이영희 국악협회 이사장이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역시 가야금 병창 인간문화재인 강정숙씨가 단가 ‘죽장망혜’를 들려준다. 또 65명의 회원이 출연한 가야금 병창 신민요 ‘상사천리봉’을 함께 연주한다. (02)581-9712



◊가야금 산조를 열창하고 있는 안숙선 명창

캐릭터 개발·문화마케팅 지원을

불교문화산업기획단, 강화도서 세미나

응용(이기선 불교조형연구소장) 등을 순서로 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점원 교수는 “불교관련 이미지 작업 및 캐릭터 상품과 선수행(선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며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의 발족으로 불교 이미지의 산업화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렬 교수도 “사찰이 관광화되기 위해서는 사

인 요소가 강하다”며 “이는 원효의 무애행에서 하나의 미학체계를 얻어 무애미의 개념으로 도출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첫날 6시간에 걸친 주제발표와 열린 토론회에 이어 둘째 날에는 사진작가 안장현씨가 ‘문화재속에 나타난 불교문양’을 주제로 한 슬라이드 상영과 조원희 지도리대표의 ‘한국 전통문양 CD를 프리젠테이션’ 강의가 열렸다.

한편 도영심 한국문화재단의 해 주진 위원은 “템플 스테이아 말로 불교

선수행 체험 관광상품 개발시급

사하촌정비·숙박시설 인증제 필요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주최로 강화 전등사에서 13일~14일 열린 ‘불교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쏟아져 나온 의견들이다. 도후 이사장 스님, 계성 전 등사 주지스님,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이미지의 산업적 응용의 현황과 전망(이점원 동국대 미술과 교수) △불교로 본 한국인의 조형의식(윤범모 경원대 미술과 교수) △사찰건축의 관광자원화(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불교이미지와 디자인 산업(박규현 대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전통불화의 산업적

하촌을 정비해 숙박 시설의 인증제를 실시해야 하며 전통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찰 부대시설의 품격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권역별과 주제별로 연계한 관광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범모 교수도 “한국의 미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자연친화주의적

계에서는 포교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외국인 유치 차원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광 프로그램”이라며 “실제로 월드컵 기간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문명의 빔발처럼 중장기적으로 장단점을 보완해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주일 기자



“스님이 부르면 모두 찬불가지요”

4집음반 ‘세상 속으로’ 낸 도신스님

른데 변신의 이유는 무엇인가?

3집 앨범까지는 모두 찬불가 음반이었는데 불자들은 좋아하지만 비불자들이 외면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이번 음반은 어느 자리에선가 ‘황성옛터’를 불렀더니 불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좋아했다.

스관 없다.

▲오랜 공백 끝에 음반을 발표 했는데 예전에 노래할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 노래 부를 때는 그 노래에 감정이입이 돼 항상 들 뜬 기분이었

어떤 노래도 포교에 맞는 창법사용

“대중가요 사람들과 더 친근하게 해”

이때부터 포교 차원에서라도 일반 대중 가요를 부르기로 결심했다.

▲스님이 대중가요를 부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스님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장르든 모두 찬불가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항상 가까이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마음 가짐이 중요하지 장르는

이 있다. 시간이 흘러서 인지 노래부

를 때의 마음가짐이 바뀐 것 같다.

▲다음 음반 계획은?

분명히 이번 음반은 기존의 틀을 깬 약간의 파격적인 변신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을 포교를 위해 다음 음반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노래를 선사하겠다.

김주일 기자